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18. 8. 9.(목) / (총7매)	담당부서	결핵에이즈관리과
과 장	신 인 식	전 화	043-719-7310
담 당 자	최 원 준		043-719-7922

질병관리본부, 2017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발간

- ◇ 2017년에 신규 HIV/AIDS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은 1,191명으로 전년 대비 8명(0.7%) 감소
 - (성별) 남성 1,089명(91.4%), 여성 102명(8.6%), 성비 10.7 : 1
 - (연령별) 20대 394명(33.1%), 30대 290명(24.3%), 40대 212명(17.8%)순으로 20~40대가 전체 약 75.2% 차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년에 신고·보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현황을 분석·정리한 「2017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하였다.

- ※ (HIV 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사람
- ※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기회감염(2차감염) 등이 나타난 경우

○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HIV/AIDS 신규 감염인은 1,191명이며, 전년('16년) 대비 8명(0.7%) 감소하였다.

- (성별) 남성 1,089(91.4%), 여성 102명(8.6%)으로 성비는 10.7:1이었다.
- (연령별) 20대가 394명(33.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90명(24.3%), 40대 212명(17.8%)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5.2%를 차지하였다.
- (국적별) 내국인이 1,009명(84.7%), 외국인이 182명(15.3%)이었다.

- 신규 감염 내국인 1,009명 중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753명이며, 이 중 752명은 성 접촉(동성 간 358명 48%, 이성 간 394명 52%)에 의한 감염이라고 응답하였다.
 - (남자) 959명 중 응답자는 715명이며, 이 중 714명은 성 접촉(동성 간 358명 50%, 이성 간 356명 50%)에 의한 감염이라고 응답하였다.
 - (여자) 50명 중 응답자 38명 모두 이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였다.
 - ※ UN의 AIDS 전담기구인 ‘UNAIDS’는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은 이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에게 비해 HIV 감염 위험이 27배이고, 성매매 여성은 13배라고 함(2017 GLOBAL HIV STATISTICS)

-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정부에서는 예방은 물론 조기 진단과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조기진단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소 무료 익명검사 및 신속검사, 자가검진 키트 활용, HIV 검진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검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아울러 감염인의 건강관리와 타인에 대한 전파 예방을 위해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복약관리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해 주요 전문 의료기관 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을 위해 활발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 표준교육자료(프레지 등) 개발·보급, 동영상 및 만화를 통한 인터넷 홍보, 인터넷 대표 포털사이트 이용 캠페인, 뮤지컬 공연 등

- 「2017 HIV/AIDS 신고현황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정책·사업>질병예방센터>HIV/AIDS 관리>통계 및 보고서)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 1. 2017년 HIV/AIDS 신고 현황
2. 질의응답(Q&A)

붙임 1 2017년 HIV/AIDS 신고 현황

<표 1. 2017년 신규 HIV/AIDS 신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내국인	외국인
계		1,191	1,009	182
성별	남자	1,089	959	130
	여자	102	50	52
연령	0-4세	1	0	1
	5-9세	0	0	0
	10-14세	0	0	0
	15-19세	36	34	2
	20-24세	163	152	11
	25-29세	231	188	43
	30-34세	178	147	31
	35-39세	112	83	29
	40-44세	122	92	30
	45-49세	90	74	16
	50-54세	94	85	9
	55-59세	71	65	6
	60-64세	41	39	2
	65-69세	25	23	2
70세 이상	27	27	0	
신고기관	병의원	769	654	115
	보건소	326	262	64
	기타	96	93	3

<표 2. 연도별 신규 HIV/AIDS 신고 현황, 1985-2017>

(단위 : 명)

연도	전체		
	계	남자	여자
1985	2	2	0
1986	3	0	3
1987	9	4	5
1988	23	18	5
1989	40	38	2
1990	54	50	4
1991	51	47	4
1992	92	84	8
1993	87	79	8
1994	99	87	12
1995	114	94	20
1996	112	101	11
1997	144	126	18
1998	137	118	19
1999	199	171	28
2000	244	211	33
2001	384	336	48
2002	457	402	55
2003	592	543	49
2004	763	672	91
2005	734	673	61
2006	796	717	79
2007	828	759	69
2008	900	814	86
2009	839	759	80
2010	837	762	75
2011	959	877	82
2012	953	864	89
2013	1,114	1,016	98
2014	1,191	1,100	91
2015	1,152	1,080	72
2016	1,199	1,105	94
2017	1,191	1,089	102

붙임 2 질의응답(Q&A)

Q1. 신규로 신고된 HIV/AIDS 이란 2017년 1년 동안 새롭게 HIV에 감염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A1. HIV는 무증상의 긴 잠복기를 가진 질환으로, 2017년 신규 HIV/AIDS 신고 현황은 한 해 동안 의료기관 등을 통해 HIV감염을 확인하여 신고된 자를 의미하며 새롭게 HIV에 감염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17년 1,191명이 신규로 신고 되었습니다.

- ※ (HIV 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사람
- ※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기회감염(2차감염) 등이 나타난 경우

Q2. HIV/AIDS 전 세계 현황은?

A2. 2017년 신규 감염인은 180만명(140만명~240만명)이고 AIDS 관련 질환 사망자는 94만명(67만명~130만명)이며, '17년말 현재 3,690만명(3,110만명~4,390만명)이 HIV 감염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인 및 AIDS 관련 사망자는 줄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신규 감염인이 증가추세입니다.

특히,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10년 대비 '17년에 30% 증가하였습니다.

Q3. 정부의 HIV/AIDS 예방정책은?

A3. 정부에서는 조기진단 조기치료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활발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4. 우리나라의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현황은?

A4. HIV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검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신속검사 확대 및 자가검진 키트 활용, 감염취약계층 대상 검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인의 건강관리 및 타인에 대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하여 복약관리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IV/AIDS 예방과 함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HIV/AIDS 예방 뮤지컬 공연, 홍보물 배포를 통한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Q5. '기회감염'이란 무슨 뜻인가요?

A5.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으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는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회를 보아 감염증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며, '2차감염'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